

서울, 학생복지위원회 구성

학내 수익사업등 제반복지사업 전담

학교당국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인건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는 학내복지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해 학생복지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6월 25일 학교측 박명광(정경대·경제) 서울캠퍼스 학생처장등 3명과 학생회 최희섭(사학·4)인복복지위원장등 3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성에 합의한 '학생복지위원회'는 2학기부터 수익사업등 시설 및 기기 일체와 부속건물사업에 대한 예산운영과 수익사업의 수익금전액 학생복지에 사용될 것 등을 결정했다.

이인복위가 지난학기 사업

평가를 통해 식당 등 복지시설에 대한 학교, 학생의 이원적 관리가 불합리했음을 지적하고 학내 복지사업을 일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식당 등의 적자폭과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학생처 후생복지과와 입장과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학생복지위원회 규약 시행계획을 보면 학내복지시설들에 대해 공개입찰을 하고, 임대료등 늘어난 수익금에 대해 복지장학금의 수혜인원과 액수를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증원할 계획이다.

오는 5일부터 3일간 2차등록 복학생 수강신청 10일부터

양캠퍼스 교무처는 복학생 수강신청기간을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기간중 수강신청 누락자 및 변경자도 수강신청을 해야하며, 부전공신청자는 학과장승인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학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도서관대출증, 신규발급 및 정기등록확인을 최종등록일까지 해야한다.

교수 연구년제 시행 확정

이번학기부터 실시위해 구체적 계획 추진

교수 연구년제 규정에 대한 학교측 초안이 지난 21일 교수회의에서 발표됨에 따라 본교기획관리실은 90년 2학기 실시를 계획

대학언론 탄압 분쇄 결의대회

서언협건준위, 강력한 연대투쟁 선언

'대학언론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울지역 대학언론 선전일군 결의대회'가 지난 23일 5백여명의 학생기자, 서울지역 대학언론협의회와 건설준비위원회(이하 서언협 건준위) 주최로 서강대에서 열렸다.

서강대(동대문문과 편입생) 서울지역 대학언론기자연합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이한기 서언협 건준위 의장은 연정권의 대학언론탄압을 스펀집장, 필자구속 등 직접적 탄압 △학교와 학생간의 분쇄화로 돌리는 간접적 탄압 △5·6조치와 같은 구조적 탄압 등으로 구분하고, '서언협은 우리자신의 조직뿐만 아니라 40만청년학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언협 건준위는 대학언론탄압에 대해 선전물배포 및 대자보작업, '대학언론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언협 건준위는 대학언론탄압에 대해 선전물배포 및 대자보작업, '대학언론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함께 투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지연사로 나온 김재용 서강대부장은 '대학언론 탄압은 학원과 민족민주투쟁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근본적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투쟁을 호소했다.

민주동문화 제3차 정기총회 4학년 대상 준회원 가입원서 접수도

경희총민주동문화 제3차 정기총회가 오는 1일 오후 4시 서울캠퍼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2기 총민주동문화 사업평가와 임원선거, 제3기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이다.

또한 총회중 사진전, 동문화동 비미오상영 등의 행사가 있으며, 민주동문화 조직확대를 위한 4학년 준회원 가입원서도 받는다.

사회학과, 교수문제해결의

강의평가제, 교수충원 등을 요구하며 6월 11일 점거농성을 했던 사회학과발전추진위원회는 12일 사회학과 교수들과의 면담에서 사회학과와 제반학문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번 합의내용은 △신규교수채용시 전공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강사채용시 교수와 학생간의 의견이 일치할때 결정 △강의평가제 도입 등이다. <관련기사 10면>

개강을 맞이하는 정겨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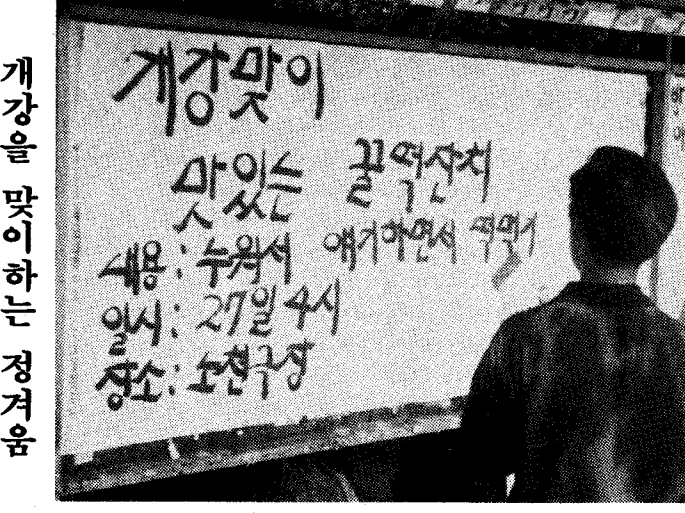
무언가를 맞다는 것은 가슴살림이다.

아마 새롭게 시작할 시간에 대한 가슴충만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개강맞이 잔치를 알리는 정겨운 포스터.

울 가을엔 골짜기처럼 푸근한 캠퍼스를 누비고 싶다.

<손영희 記者>



후기 학위수여식 30일 거행 박사61명등 총5백38명 학위취득

총장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박사학위취득자명단 6, 7면>

조국통일 위한 범민족대회 개최

지난 13일부터 연세대서 3만여명 참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지난 13일부터 3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주최로 연세대에서 열렸다.

추진 본부는 13일 오후 10시 '통일선봉대 서울임성 환영식 및 한미연합사 항의방문 출정식'을 시작으로 둘째날 '전대통일노래 한마당', '통일선봉대 환영식 및 전대통일노래 한마당' 등을 통해 조국통일의 결의를 다졌다.

또한 15일에는 오전 11시 '8·15 45주년 기념식 및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출정식'을 갖고 본행사장소인 관문점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교문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여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다. 이어 오후 2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있는 '범민족대회 보고 및 원전봉쇄 규탄대회'에서 송갑석(전남대 총학생회장) 전대위원장 등 '현정권의 반통일적 음모'는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났다. '며' '반통일세력인 미·노·일당 타도'를 외치며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본교10여명 등진행된 통일선봉대 7백여명은 전대개방선봉대와 자유광대 선봉대로 나누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한라산을 출발해 10박11일간 전국 주요도시를 거쳐 '전대개방·자유광대 실현 및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국토종단 대장정'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6면>

총학간부 구속을 계기로 자치조직 재인식 필요

▼학생회는 대학내 학생자치조직으로 학생 대의의 존재기반을 떠날 수 없다. 군사정권의 학원통제의 산물인 학도호국단에서 민주적 학생회로 바뀌어진 것도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었다. 군사문화의 속성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정권의 학원탄압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마치 연대행사처럼 허위발학이 끝나면 학생회간부의 연행·구속이 자행되어왔다.

▼대학의 특성상 학생대중과 학생회간부의 결함이 취약한 데다 주로 많은 학원화단들이 이뤄진다. 올해도 예외없이 이기적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심민성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배성철 고령교지편집장 구속 등의 사태가 있었다. 반학이라는 특수성이 주는 한계로 지부학원 우리 자신의 책임을 모두 덜 수는 없다. 특히 서울캠퍼스의 경우 총학생회 집행부의 홍보, 선전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나쳐버린 예는 '심민성학원 연행규탄대회'에서 나타났다. 또한 개강이후에도 학생회간부가 구속된 데 대해 거의 반응이 없는 것도 현재의 우리캠퍼스의 학생단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간 학생회가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하(?) 기반 없이 학생회간부의 반성을 촉구해야 할 것이지만 기층대중의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타성적인 관성화

회장, 배성철 고령교지편집장 구속 등의 사태가 있었다. 반학이라는 특수성이 주는 한계로 지부학원 우리 자신의 책임을 모두 덜 수는 없다. 특히 서울캠퍼스의 경우 총학생회 집행부의 홍보, 선전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나쳐버린 예는 '심민성학원 연행규탄대회'에서 나타났다. 또한 개강이후에도 학생회간부가 구속된 데 대해 거의 반응이 없는 것도 현재의 우리캠퍼스의 학생단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간 학생회가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하(?) 기반 없이 학생회간부의 반성을 촉구해야 할 것이지만 기층대중의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타성적인 관성화

또한 자치조직의 주체로 서기엔 거리가 있다. 올바른 대표조직을 세우나 하기 위해선 건전한 비판과 참여가 있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학생회의 강화, 발전에 가장 큰 장애는 무관심과 방관일 것이다.

▼대학에서 학원·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현실, 정권의 학원탄압을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방법은 학생회조직을 올바르게 세우나가는 길뿐이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는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올바른 실천 속에서 검증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생회간부의 구속을 계기로 학생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치조직의 주체로 서기엔 거리가 있다. 올바른 대표조직을 세우나 하기 위해선 건전한 비판과 참여가 있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학생회의 강화, 발전에 가장 큰 장애는 무관심과 방관일 것이다.

▼대학에서 학원·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현실, 정권의 학원탄압을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방법은 학생회조직을 올바르게 세우나가는 길뿐이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는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올바른 실천 속에서 검증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생회간부의 구속을 계기로 학생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 이내	매월소정 납입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단기	85.8.1 이전대출	거치기간(예:학기간) 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5.8.1~89.12.31 대출	원금: 거치기간(예: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 납입
학자금	89.12.22 이후대출	원금: 거치기간(예: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53개월 또는 60개월 단위로 납입 ·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임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의 제도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 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지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 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점을 심심한 감안 하하여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의료공제회 이용 안내

1. 학생의료공제회 목적: 본교 학생이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고액의 진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불행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원하여 재학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업을 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 공제회원: 본교 학생으로서 공제회비를 납부한자.
3. 공제회 지정 진료기관: 본교 본진료소(제1차 진료기관) 경희의료원(제2차, 제3차 진료기관), 제2차 진료기관.
4. 요양급여기간의 제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학기당 통산 90일.
5. 진료절차: 학생이 공제회담당자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아 교내(음악대학입구)본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료 받고 본진료소의 진료비환위를 넘겨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는 경희의료원으로 이송함.
6. 공제회 신청절차: 가. 이종가입회원(부모나 본인이 기존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료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학생처내)에 제출하면 발효와 같이 공제비를 지급함. 나. 일반회원은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가입자와 모든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여줌. 다. 공제회원은 경희의료원을 방문하지 못할경우로 응급하여 타진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응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납입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심하여 공제비를 지급함.

◇급여기준◇

나. 이종가입회원 진료자	
영 의 의료원 (치과,한방) 외래	본인부담금에 대한
	본인 부담 공제회 부담
	20% 80%
영 의 의료원 (치과,한방) 입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본인 부담 공제회 부담
	0% 100%

영 의 의료원가입에 문의하러

공제회 이용절차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은 학생처 의료공제회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045-0045-0045)

육군 카투사병모집안내

('91년도 전반기)

- 모집인원: 000명
- 지원자격: 학력 및 신체: 학력중졸이상, 신체등급 3급이상 연령: 만17세이상 23세이하(67.10.5~73.10.5) 결혼일 기준 3개월이후 임영대상자 -경병장사 또는 임영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의사사 전역대상자가 아닌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0. 9. 3.~10. 5 -경소(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지방 병무청, 모병관실 및 강원, 충청, 관동대 학군단), 지원서는 각 대학 학군단에서도 교부
- 구비서류: 1. 차 -지원서 1부 -사진 (4X5)3매, 인장, 주민등록초본 1부 2. 차 -주민등록등본 2부, 호적등본 1부, 사진 (3X4) 1매
- 전형방법 및 일정: 1차 선별: 1차에서 선별된 자에 한함.
- 기타: 임영시기: '91. 1월 ~5월 임영선수는 생년월일 연장자순으로 하계임영시험신체검사는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지방 병무청 모병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경부수입인원500원인 지참 학군단에서 지원서 교부발급을 (교내우체국에서 수입인원 판매함) 1990. 8. 16

교회 안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교회회를 둔 분들은 본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봉사(성가대·교회학교 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예배시간>
주일아침: 1부 9시, 2부 11시
주일저녁: 매주 일 오후 7시
삼일저녁: 수요일 7시
대학 청년부: 매 토요일 오후 5시

성지에서 온 교회

예비군편성신고안내

(하반기)

'90년도 하반기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및 복학생 예비군 대원 편성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대상자는 기일내에 전원 신고하기 바라며, 기간내 미신고자는 일체 신고받지 않음.

가. 신고기간: '90.8.30 - '90.9.5(6일간)
나. 신고장소: 예비군 연대본부(본관 1층)
※하반기 예비군 보충교육은 '90.11.20~'90.11.28에 실시 예정임
· 기타 주소 이전자 및 사진 미제출자는 즉시 연대본부에 신고 및 제출할 것.
· 군년도 지역에서 16시간이상 기본교육 및 등원훈련 이수자는 군년도 교육은 면제됨.

경희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육군 종합행정학교